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정 옥 분¹⁾ 임 정 하²⁾ 정 순 화³⁾ 조 윤 주⁴⁾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는 자극추구성향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이다. 문헌조사와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854명의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RMSEA값을 비교하여 3요인으로 요인의 수를 선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및 준거타당도, 변별타당도 검증을 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가 .90 TLI가 .92 RMSEA가 .05의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어 교차타당도(N=394)를 확인하였다. 최종 개발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스릴 및 모험추구, 일탈적 경험추구, 새로운 경험추구의 3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어 : 자극추구성향, 척도 개발, 타당화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본 연구는 2009년 고려대학교 학제간연구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장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3)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4)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E-mail : yjcho4@korea.ac.kr)

I. 서 론

청소년이 성인문화에 노출되는 사회적 연령이 점차 낮아짐과 동시에, 비행과 같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외현화된 문제를 예방하고 증재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생물학적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제 가운데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극추구성향을 들 수 있다.

자극추구성향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증가하면서 15-16세경에 최고점에 이르다가, 이후에는 점차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낸다(Cauffman et al., 2008; Steinberg et al., 2008). 이러한 발달적 양상은 자극추구가 청소년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성향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며(Arnett, 1996; White, Lavouvie, & Bates, 1985; Zuckerman & Eysenck, 1978),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서 자극추구성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Zuckerman(1971, 1994)은 자극추구성향을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대한 욕구와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Mittelstaedt와 동료들(1976)은 자극추구성향을 변화, 새로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여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접촉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을 말해

준다(노웅철, 2005). 자극추구성향은 외현적인 행동문제와 관련되고(White, Lavouvie & Bates, 1985), 무모한 행동을 촉발시키며(Arnett, 1996),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fry, 1982). 또한, 범죄 및 도박과도 관련성이 나타났으며(Horvath & Zuckerman, 1993), 청소년의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돈규, 2000; 오미경, 1997; Newcomb & McGee, 1991).

자극추구성향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동성과 공통점이 있지만, 자극추구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충동성과는 다르다. 충동성은 자기통제가 부족하거나 억제능력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Glvan et al., 2007; Leshem & Glicksohn, 2007), 보상에 대한 어떠한 기대 없이도 일어난다. 반면에, 자극추구성향은 신기하고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한 보상적인 경험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충동성과는 구분된다(Steinberg et al., 2008).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차를 측정하는 자극추구성향 척도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는 SSS-V(Sensation Seeking Scale, 1978)와 AISS(Arnett Inventory of Sensation Seeking, 1994)를 들 수 있다. Zuckerman(1969)은 자극추구가 자극에 대한 정서적인 각성수준이 위험이나 불안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함으로써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Zuckerman과 동료들(1964)은 SSS(Sensation Seeking Scale)를 개발한 이후, 스릴과 모험추구(thrill and adventure seeking), 분출

(disinhibition), 컨태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의 4요인으로 하위 영역을 나누어 명명하였다(Zuckerman, 1971). 그 후 6차(1984)까지 개정판이 소개되었는데, 성별 및 문화적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SSS-V(1978)가 자극추구성향의 표준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Zuckerman, Ball, & Ball, 1990). 하지만, SSS-V는 문화적인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이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추구성향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SSS(Sensation Seeking Scale)의 하위요인 구성에 대해서는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최근에는 스틸과 모험추구, 경험추구는 사회적인 자극추구로, 컨태민감성과 분출은 비사회적인 자극추구로 구성하는 2요인 체계가 보다 적합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Glicksohn & Abulafia, 1998; Knust & Stewart, 2002).

Arnett(1994)는 SSS의 항목들에 시대적, 문화적 특수성이 지나치게 반영되어져 있고, 신체적 위험감수의 항목들의 경우에 자극추구성향의 차이보다는 연령으로 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척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rnett(1994)는 자극추구성향을 감각적인 경험을 위해서 새로운 것과 강렬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AISS(Arnett Inventory of Sensation Seeking)를 개발하였다. Arnett(1994)는 자극추구성향이 생물학적인 특성 못지않게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극추구성향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 뿐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강렬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보편적인

특질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AISS는 새로움(novelty)과 강렬함(intensity)의 2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인 위험감수의 요인을 배제하여 불법적이거나 비규범적인 항목들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AISS는 자극추구성향이 반사회적이거나 규준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배척하여 만들어 졌다. 하지만, 불법적이고 비규범적인 행동들 중에는 연령 특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가령, 성인기에는 규범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청소년기에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 특징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을 무조건 배제시킨다는 것은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정의의 제한하고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극추구성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Steinberg와 동료들(2008)은 SSS의 항목들이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인이 개발되어졌고(Zuckerman et al., 1961, 1994), AISS가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사회적인 위험감수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척도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화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아동용 간략판이 나오기도 했지만(Russo et al., 1993) 서구의 문화

적 환경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된 자극추구성향 척도들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거나(윤진, 강필중, 2003),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건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의 외현화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시기적인 특성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실정을 반영하여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1, 2학

표 1. 연구 대상자 현황

조사	대상자 수		
	남학생	여학생	전체
개방형 질문	73	77	150명
예비조사	81	113	194명
본조사	457	397	854명
타당화 작업	189	195	394명

년 남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고, 동일 지역 내 194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문항 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2곳, 수도권 지역 2곳의 고등학교 1, 2학년 8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했던 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854명(남학생 457명, 여학생 39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5세로 나타났다. 최종척도에 대한 교차타당도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94명(남학생 189명, 여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에 대한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비행 척도

K-CBCL(Achenbach & Edelbrock, 1983)의 한국어판) 비행척도 등을 참고로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2005)이 재구성한 청소년 비행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폭력 및 일반지

위 비행, 사회적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없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예비문항 구성을 위해 2009년 6월 1일~6월 6일까지 1차 예비조사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09년 6월 22일~6월 26일까지 구성된 예비문항의 선정 작업을 위해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9년 7월 3일~7월 13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9년 7월 16일~7월 20일까지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변별 타당도 분석을 위한 잠재변인 간의 차이검증을 시행하였고,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 개발

청소년들의 자극추구성향에 대한 기존의 척도들의 내용과 관련 문헌들(박운창, 이미경,

윤진, 1995; 오미경, 1997; 전덕희, 2002; Amertt, 1996; Holye et al., 2000; Mittelstraedi, Sanford, Williams, & Stephen, 1976; White, Lavouvie, & Bates, 1985; Zuckerman, 1979)을 고찰하여 아동학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62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고등학교 1, 2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질문에 서는 강렬하고 새로운 경험 중에서 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물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77개 문항으로 목록화 할 수 있었는데, 주된 주제는 반사회 행동 추구, 스릴과 모험추구, 이성교제 추구, 공격적 행동추구, 새로운 경험추구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 각 주제 내에서 중복되는 문항들과 질문과 동떨어지거나 부적절한 문항들을 1차적으로 제외하였고, 문헌조사를 통해 추출하였던 문항들과 중복되는 내용을 2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아동학 교수 4인과 심리학 교수 1인의 전문가 5명으로부터 남겨진 문항들이 적절한 지를 점검받아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13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추출한 62개 문항과 합하여 75개의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75개의 예비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분(communality)이 .40 미만인 문항들을 제거하였고, 공통요인 변량에서 추출된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인 문항들과 더불어도되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2차 예비문항으로 31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본 조사는 서울 시내 및 수도권에 재학 중인

표 2. 요인모형의 적합도

요인모형	χ^2	df	p	RMSEA
1요인모형	5142.24	434	.000	.115
2요인모형	2639.71	404	.000	.083
3요인모형	1986.51	375	.000	.071
4요인모형	1491.21	347	.000	.063

남녀 고등학생 8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검사 결과, 2~3개의 요인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가장 적합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카이값과 적합도 지수를 통해 RMSEA값을 산출한 뒤 적합도를 비교해 보았다. RMSEA 값은 .06이하인 경우에는 양호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각 요인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표 2와 같이 3요인의 경우에 4요인의 경우보다 RMSEA값이 높았지만, 변환된 값의 범위가 .01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수치는 요인의 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적합도의 개선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요인으로 요인의 수를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후, 더블로딩 되었거나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인 문항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3요인 2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해서는 '스릴 및 모험 추구', '일탈적 경험추구', '새로운 경험추구'로 명명하였다. '스릴 및 모험추구'는 위험요소가

표 3. 최종선정 문항의 기술통계치

요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I	문항1	2.40	1.25	.48	-.84
	문항2	3.23	1.13	-.28	-.60
	문항3	3.49	1.21	-.48	-.64
	문항5	3.36	1.34	-.34	-1.05
	문항7	3.35	1.42	-.38	-1.16
	문항9	3.09	1.38	-.06	-1.22
II	문항10	3.54	1.41	-.57	-.97
	문항11	3.96	1.32	-1.05	-.15
	문항14	1.80	1.12	1.29	.74
	문항20	3.20	1.23	-.15	-.78
	문항21	2.64	1.40	.33	-1.15
	문항22	2.15	1.37	.88	-.56
III	문항24	2.06	1.40	1.04	-.32
	문항27	2.05	1.29	1.06	-.01
	문항15	4.12	1.08	-1.22	.85
	문항17	3.66	1.29	-.65	-.67
	문항23	3.45	1.41	-.43	-1.09
	문항28	2.90	1.43	.09	-1.29
	문항30	3.97	1.27	-1.09	.06
	문항31	3.17	1.51	-.15	-1.42

포함되어 있는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새로운 경험추구'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일탈적 경험추구'는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사회적인 규범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다면 반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행동들에 대한 추구를 나타낸다. 각 문

표 4. 자극추구성향 문항내용 및 요인구조

번호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1	암벽 등반을 해보고 싶다.	.50		
2	겁나더라도 스릴감 넘치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	.57		
3	수상스키나 서핑보드 같은 짜릿한 스포츠를 해보고 싶다.	.74		
5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며 비행 해보고 싶다.	.58		
7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보고 싶다.	.81		
9	높은 산비탈에서 스키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고 싶다.	.65		
10	번지점프를 해보고 싶다.	.71		
11	놀이공원에서 청룡열차나 아찔한 놀이기구들을 타고 싶다.	.50		
14	폭주족과 같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집단의 또래들과 사귀어보고 싶다.		.54	
20	이성친구와 스킨십을 하고 싶다.		.53	
21	유흥업소(예: 호프 집)나 클럽에 가서 밤새 놀고 싶다.		.74	
22	술이나 담배를 눈치 볼 필요 없이 해보고 싶다.		.75	
24	학교 ‘짱’이 되어 싸워보고 싶다.		.53	
27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 보고 싶다.		.57	
15	사람들로 북적대는 모임이나 파티에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고 싶다.			.63
17	세계각지를 여행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싶다.			.45
23	콘서트장 스탠딩석에서 열광하고 싶다.			.55
28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을 착용해 보고 싶다.			.42
30	스포츠카로 큰 도로를 달려보고 싶다.			.37
31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다.			.40
고유치		5.82	2.74	1.38
설명변량		25.80	11.41	4.40
누적변량		25.80	37.21	41.61

항에 대한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요인구조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최종 선정된 3요인 모형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표 5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의 α 는 .88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는 ‘스릴 및 모험추구’ 요인에서 Cronbach의 α 가

표 5.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신뢰도

구분	요인별 신뢰도 계수
스릴 및 모험추구	.87
일탈적 경험추구	.82
새로운 경험추구	.77
전체	.88

.87, ‘일탈적 경험추구’ 요인에서 Cronbach의 α 가 .82, ‘새로운 경험추구’ 요인에서 Cronbach의 α 가 .77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자극추구성향은 외현적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고(White, Lavouvie & Bates, 1985), 실제적인 범죄행동과의 관련성이 높다(Horvath & Zuckerman, 1993). 그러므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인 비행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표 6에서 자극추구성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는 폭력 및 지위비행과는 .48($p<.01$), 사회적 비행과는 .45($p<.01$), 성적비행과는 .25($p<.01$), 재산비행과는 .38($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가 청소년

표 6. 자극추구성향과 비행과의 상관

	폭력 및 지위비행	사회적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
스릴 및 모험추구	.21**	.22**	.10*	.19**
일탈적 경험추구	.61**	.56**	.37**	.47**
새로운 경험추구	.38**	.31**	.14**	.26**
자극추구성향	.48**	.45**	.25**	.38**

* $p<.05$, ** $p<.01$

비행과 준거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변별타당도의 검증을 위해서는 잠재변인이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인을 두 개씩 짝을 지어 잠재변인 간 상관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과 비제약 모델을 비교 검증하였다(Bagozzi, 1981). 표 7에서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에 χ^2 차이값을 비교한 결과, 각 잠재변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잠재변인 간에 변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변별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제약모델	비제약모델	Δdf	$\Delta \chi^2$
스릴 및 모험추구-일탈적 경험추구	619.27***	490.24***	1	129.03***
일탈적 경험추구-새로운 경험추구	256.24***	179.91***	1	76.33***
새로운 경험추구-스릴 및 모험추구	299.55***	212.85***	1	86.7***

*** $p<.001$

표 8. 확인적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CFI	TLI	RMSEA
자극추구성향	607.78	160	.90	.92	.05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에 대한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적합도 지수인 CFI가 .90 TLI가 .92 RMSEA가 .058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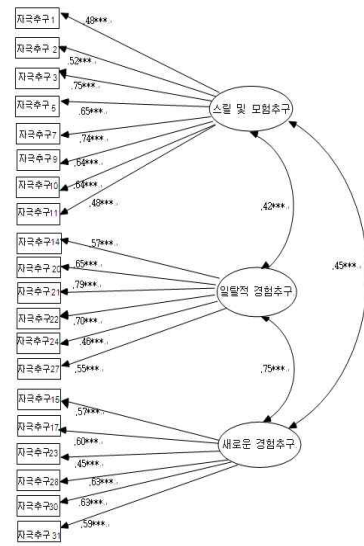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의 측정모형

부하량은 .45에서 .79로 적절한 값을 나타내고, 스릴 및 모험추구와 일탈적 경험추구의 상관은 .42, 일탈적 경험추구와 새로운 경험추구는 .75, 그리고 스릴 및 모험추구와 새로운 경험추구간의 상관은 .45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실정에 맞는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스릴 및 모험추구, 일탈적 경험추구, 새로운 경험추구의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가 .88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었고,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변별타당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적합도 지수(CFI=.90, TLI=.92, RMSEA=.058)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가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스릴 및 모험추구, 일탈적 경험추구, 새로운 경험추구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척도의 구성은 Zuckerman의

SSS-V(1978)와 달리, 권태민감성 요인이 구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몇 가지로 논의 해 볼 수 있다. 먼저, SSS가 성인을 대상으로 구인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척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권태민감성은 반복적인 경험에 대한 싫증이나 지루함과 같은 권태에 대한 용인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요인은 신체적, 정서적인 활동 욕구가 왕성한 청소년의 자극추구 구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SSS-V를 개정한 SSSC(Russo et al., 1993)에서도 스릴과 모험추구, 약물과 알콜추구, 사회적 억제의 3요인으로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권태민감성에 상응하는 요인은 구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척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극추구성향은 사회화 환경의 특성에 달려 있는 만큼 (Farley, 1973), 현저한 시대적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되어 권태민감성 요인이 구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본 척도에서는 Arnett(1993)의 AISS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적 위험감수의 측면이 일탈적 경험추구의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탈적 경험추구 요인은 청소년 지위로서 위험감수가 뒤따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새롭고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자극추구성향의 개념 정의 (Zuckerman, 1979)를 반영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준비 및 학업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청소년 지위에 대한 제약과

제제가 엄격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사회적인 위험감수가 청소년들의 자극추구성향을 반영해 주는 적합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청소년 비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변화, 새로운 그리고 다양하고 감성적인 경험을 느끼려는 자극추구성향이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Donohew et al., 2000, 2001; Hoyle et al., 2000). 이는 새롭고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청소년기의 성향만으로 비행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행동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이고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극추구성향은 다른 형태의 다양한 행동으로 대체가능한 특성을 지닌다(Zuckerman, 1978). 이러한 특성은 자극추구성향을 적절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및 환경적인 여건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사회적인 위험감수의 욕구를 대체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강렬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추구가 왜곡된 방향으로 분출되지 않을 수 있

도록 대안적인 활동 및 공간에 대한 확보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자극추구성향의 측정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외국의 척도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거나 개정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실험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청소년기의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적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는 척도로서 관련 이론들을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개방형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화와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과 기호에 맞는 항목들을 검토함으로써 문항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 자극추구가 문화적인 동기가 반영된다는 점에서(Zuckerman, 1978),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척도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해 양호한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다양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교차타당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척도의 개발은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청소년기의 외현화된 문제에 대한 개입과 중재를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척도는 자극추구성향이 두드러진 시기로 알려진 고등학생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청소년의 자극추구성

향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고3의 경우에 고3 특수라는 극심한 입시스트레스로 결과가 편파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표하는 척도로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노웅철 (2005). 사용자의 특성이 온라인 게임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극추구성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 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오미경 (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109-123.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유진, 강필중 (2003). 한국형 감각추구척도의 타당도 검증과 스포츠 참가 예측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249-264.
- 전덕희 (2002). 청소년의 우울과 감각추구성향이

-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rnett, J. (1993).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Arnett, J. (1996). Sensation seeking, aggressiveness,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693-702.
- Bagozzi, 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 Cauffman, E., Claus, E., Shulman, E., Banich, M., Graham, S., Woolard, J., & Steinberg, L. (2008). *Responding to reward versus punishment: How adolescents differ from adults in performance on the Iowa gambling task*.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Donohew, L., Zimmerman, R., Cupp, P. S., Novak, S., & Abell, R. (2000). Sensation seeking, impulsive decision-making, and risky sex: implications for risk-taking and design of interven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7), 1079-1091.
- Farley, F. H. (1973). Implications for a theory of

- delinquen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 Galvan A., Hare, T., Voss, H., Glover, G., & Casey, B. J. (2007). Risk taking and the adolescent brain: Who is at risk? *Developmental Science*, 10, 8-14.
- Glicksohn, J., & Abulafia, J. (1998). Embedding sensation seeking within the Big Thre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6), 1085-1099.
- Horvath, P., & Zuckerman, M. (1993). Sensation seeking, risk appraisal, and risk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41-52.
- Hoyle, R. H., Fejfar, M. C., & Miller, J. D. (2000). Personality and sexual risk-taking: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68(1), 1203-1231.
- Hu L, & Bentler P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 Equat Mod*, 6, 1 - 55.
- Kafry, D. (1982). Sensation seeking of young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61-166.
- Knust, S. & Stewart, A.L., (2002). Risk-taking behaviour and criminal offending: An investigation of sensation seeking and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 Comparative Criminology*, 46, 586 - 601.
- Leshem, R., & Glicksohn, J. (2007). The construct of impulsivity revisited. *Personality and*

- Individual Differences*, 43(4), 681-691.
- Mittelstaedi, R. A., Sanford, L. G., Williams, W. C., & Stephen, P. D. (1976). Optimal stimulation level and The adoptio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 84-94.
- Newcomb, M. D., & McGee, L. (1991).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on general deviance and specific problem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Russo, M. F., Stokes, G. S., Lahey, B. B., Christ, M. A. G., McBurnett, K., Loeber, R., et al. (1993). A sensation seeking scale for children: Further refinement and psychometric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5(2), 69-86.
- Steinberg, L., Albert, D., Cauffman, E., Banich, M., Graham, S., & Woolard, J. (2008). Age differences in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as indexed by behavior and self-report: Evidence for a dual system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4(6), 1764 - 1778.
- White, H. R., Labouvie, E. W., & Bates, M. 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197-211.
- Zuckerman, M. (1969). Theoretical formulations. In F. Zubek (Ed.), *Sensory deprivation: fifteen years of research*.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Zuckerman, M. (1971). Dimensions of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1), 45 - 52.
- Zuckerman, M. (1974). The sensation seeking motive. In B. Mas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7). New York: Academic Press.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Exner(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and psychopathy. In R. D. Hare, & D. Schalling, *Psychopathic behaviour: Approaches to research* (pp. 165-186). London: Wiley.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ckerman, M., Ball, S., & Black, J. (1990). Influences of sensation, gender, risk appraisal, and situational motivation on smoking. *Addictive Behaviors*, 15, 209-220.
- Zuckerman, M., Eysenk, S. B. G. & Eysen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 139-149.
- Zuckerman, M., Kolin, E., Price, L., & Zoob, I. (1964). Development of a sensation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62, 1-20.

1 차원고접수 : 2009. 12. 29.
수정원고접수 : 2010. 02. 25.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3.

인간발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0, Vol. 17, No. 1, 385-3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nsation Seek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Chung, Ock-Boon Lim, Jung-Ha Chung, Soon-Hwa Cho, Yoon-Ju

Institute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ensation seek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In the first step, preliminary items from previous scales and responses of open-end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854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o uncover three principal factors. The Sensation Seeking Inventory for Adolescents(SSIA)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provided evidence of concurr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In the second step, data were collected from 394 adolescents, in order to test the cross validity of the SSIA.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cross validity of the SSIA(CFI=.90, TLI=.92, RMSEA=.05). The final version of the Sensation Seek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was composed of 20 items with three factors including thrill and adventure seeking, deviant experience seeking and novel experience seeking.

Key words : sensation seeking, scale development, validation